

# 중앙일보

2004년 9월 22일 수요일

창간 **39**주년 특별기획  
1965. 9. 22~

아시아-유럽 프레스 포럼

주제 : 새로운 아시아, 새로운 유럽



20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열린 제9회 아시아-유럽 프레스 포럼에서 홍석현 중앙일보 회장이 개회사를 하고 있다. 박종근 기자

## “유럽은 단일 공동체 새출발 아시아는 소모적인 논쟁만”

### 첫 토론회 열려

제9회 아시아-유럽 프레스 포럼이 20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‘새로운 아시아, 새로운 유럽’이라는 주제로 첫 번째 토론회를 했다. 아시아의 부상과 25개국으로 확대된 유럽연합(EU)이 국제 질서의 변화에 미칠 영향과 지역 간의 상호관계를 논의하기 위한 이번 포럼은 중앙일보가 한국언론재단(이사장 박기정)·유민문화재단(이사장 이홍구)·아시아유럽재단(ASEF)과 공동 주최했다. 아시아-유럽 20개국에서

22명의 중견 언론인이 참여했다.

윌리엄 파프 인터내셔널 헤럴드 트리뷴(IHT) 칼럼니스트는 기조연설에서 “오는 11월 미국 대선에서 누가 이기든 미국은 아시아-유럽의 동맹국들과 점점 입장 차이를 드러낼 것”이라며 “아시아와 유럽 국가들은 이미 미국의 영향을 받지 않고 정치·경제적 결정을 내리기 시작했다”고 말했다.

이어 기조연설을 한 태국의 카비 총키타본 네이션 그룹 부발행인은 “유럽은 단일 공동체로 새로운 출발을 하고 있지만 아시아는 소모성 논쟁을 하고

있다”며 “아시아 지도자들은 미래에 대한 비전은 있지만 새로운 아시아를 만들어 낼 용기와 정치적 의지가 부족하다”고 지적했다.

프랑스의 다니엘 베르네 르몽드 국제담당, 영국의 리처드 로이드 페리더 타임스 아시아 담당, 중국의 위자푸 신화사 외사국장 등 참석자들은 21일 열린우리당 이부영 의장과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, 외국 특파원 등과 함께 한반도 주변 정세와 관련해 간담회를 한다.

박현영 기자

hypark@joongang.co.kr